

모기질 세포종*

- 증례 보고 -

인제의대 상계 백병원 해부병리과

박 경 미·심 정 원·고 일 향

=Abstract=

Pilomatricoma (Calcifying Epithelioma of Malherbe)

- A case report -

Kyeongmee Park, M.D., Jungweon Shim, M.D., and Ilhyang Ko, M.D.

Department of Pathology, Sanggye Paik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Pilomatricoma is a well defined and characteristic entity histologically, but this tumor may be encountered during aspiration biopsy of subcutaneous mass, and is, occasionally, confused with other neoplasms, particularly squamous cell carcinoma, basal cell carcinoma, and epidermal inclusion cyst.

Recently, we have experienced a case of pilomatricoma diagnosed by aspiration biopsy. The smear of the aspirate revealed anucleated "ghost" squamous cells, basaloid or basophilic squamous cells and nucleated squamous cells, which lack nuclear features of malignancy.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pilomatricoma.

Key words: Pilomatricoma, Calcifying epithelioma, Skin tumor, Aspiration cytology

서 론

모 기질 세포종은 조직학적 소견이 비교적 전형적

이고 세포학적으로도 그 특징적 형태를 고려할 때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나 세침 흡인 세포학적 소견으로는 피부에 생기는 다른 양성 및 악성 종양과의 감별이 어렵다^{1,2)}. 저자들은 최근 세침 흡인 세포 검사를 통한 모 기질 세포종 1례를 경험하였기에 조직학적 소견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본 논문의 요지는 1990년 6월 16일 대한세포병리학회 제 6차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증례

환자는 32세 남자로서 2년전 좌측 어깨에 발생한 피부 결절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결절은 장경 2cm로 잘 움직이고 단단하며 결절 상부의 피부가 얇은 적청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다. 도말 표본의 광학 현미경 소견상 괴사성 배경에 핵대 세포질 비율이 높고 명료한 핵소체를 갖는 호염기성 상피 세포들이 관찰되었으나 이 핵들의 크기는 일정하였고 염색질이 엉켜있지 않았으며 핵분열도 없었다. 그리고 다양한 성숙도의 편평상피 세포들이 산재해 있었고 "ghost" 세포들도 관찰되었다(Fig. 1,2,3). 그 외에 다핵성 거대세포와 각질 물질, 백혈구들도 존재하였다. 이와같은 세포학적 소견은 피부부속 기관의 종양을 시사하였고 악성종양의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였다. 적출된 종괴의 조직학적 소견을 보면 가장자리의 기저양 세포가 갑자기 각화되어 중심부에

"ghost"와 "shadow"세포를 형성하고 이와 더불어 이물반응, 석회화 및 골화의 소견을 보였다. 핵소체는 뚜렷하였으나 핵의 크기는 일정하였고, 감수분열은 관찰되었으나 광학대 시야 10개당 1개 미만이었다.

고 안

현재까지 보고된 모 기질 세포종의 세침 흡인 세포학적 소견을 보면 이는 3가지 형의 종양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핵의 "shadow" 또는 "ghost" 편평상피 세포가 관찰된다. 주위 배경에서는 림프구, 형질 세포, 조직구와 같은 만성 염증을 비롯하여 다핵성 거대 세포가 관찰되며 석회 침착과 소수의 섬유아세포도 존재하나 급성 염증 세포의 침윤은 적다. 이는 괴사성 배경, 높은 핵대 세포질 비율, 그리고 명료한 핵소체를 갖는 호염기성 상피세포 등이



Fig. 1. Epithelial cell clusters in necrotic background (Papanicolaou, $\times 400$).



Fig. 2. Monotonous epithelial cells with prominent nucleoli (Papanicolaou, $\times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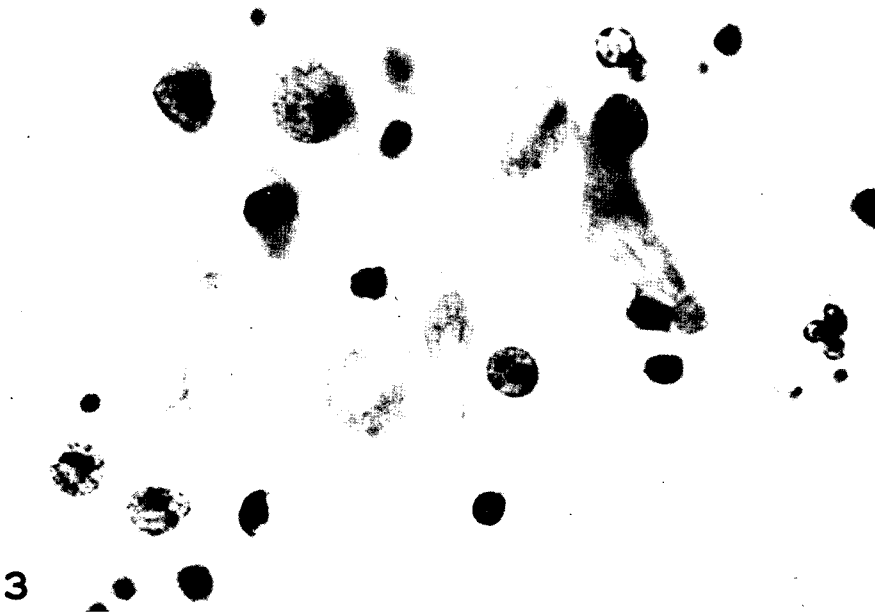


Fig. 3. Squamous cells, shadow cells, and keratin (Papanicolaou, $\times 1000$).

이해 때때로 악성으로 오진하는 경우가 있다^{1,2,3}. 가끔 분화가 좋은 편평상피 세포암과의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우선 나이가 어리고 편평상피 세포의 핵이 균일하면서 무핵의 "shadow"세포가 보이면 편평상피 세포암을 배제할 수 있다. 또한 기저 세포암과의 감별도 필요한데 이때는 모 기질 세포종에서와는 달리 "shadow"세포와 이물반응, 성숙형 편평상피 세포의 존재등을 볼 수 없다¹. 그 밖에 감별해야 할 흔한 양성 종양으로 표피 낭종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유핵 및 무핵의 편평상피 세포와 함께 각질이 관찰되고 기저양 세포가 없다¹. 본 증례에서도 세포학적 소견상 3가지 형의 종양세포를 모두 볼 수 있었다. 첫째, 무핵의 "shadow" 또는 "ghost" 편평상피 세포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개개로 흩어져 있거나 느슨한 결합을 하고 있었으며 크기는 다양하였다. 둘째로 기저세포양 편평상피 세포는 강한 결합을 하고 있었고 윤곽은 불분명하였다. 핵은 염색질이 풍부하였으며 타원형 또는 삼각형이었고 세포질은 거의 없었고 호염기성을 띠었다. 전반적으로 핵대 세포질 비율이 증가되어 있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핵을 가진 편평상피 세포는 드물게 관찰되었고 그 밖에 만성 염증 세포들과 석회 침

착등이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세포학적 소견은 모 기질 세포종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결 론

모 기질 세포종은 세포학적으로 괴사성 배경에 핵대 세포질의 비율이 높고 명료한 핵소체를 보이므로 악성종양으로 오인될 수 있음에 유의하고 다른 악성 종양과의 감별이 중요하다. 저자들은 최근 피부에 생긴 모 기질 세포종의 세침 흡인 세포학적 소견과 함께 이와 감별해야 할 병변을 중심으로 보고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1. Solanki P, Ramzy I, Durr N, Henkes D: Pilomatrixoma. Cytologic features with differential diagnostic considerations. *Arch Pathol Lab Med* 111: 294-297, 1987
2. Woyke S, Oszewski W, Eichelkraut A: Pilomatrixoma: A pitfall in the aspiration cytology of skin tumors. *Acta Cytol* 26: 189-194, 1982
3. Ramzy I: Clinical cytopathology and aspiration biopsy. Norwalk, Appleton and Lange. 1990, pp 254-255